

예수와 유대 지도자들과의 분쟁은 앞서도 다루었다. 막 2:1-3:6 이 갈릴리 지역에서 분쟁을 말한다면, 막 12:13 이후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난다. 이제는 지배체제 신학과의 정면 승부다. 이야기는 그들—제사장, 장로, 서기관—이 예수에게 나아와 묻는 질의응답 형식을 취하는데, 이는 당시 지중해 지역의 문화권에서 특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여겼던 ‘명예와 수치’(honor and shame)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지배세력인 그들이 예수에게 수치를 안기고자 꾀한다. 네가 (감히) 성경을 아느냐? 예수의 대답은 오히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른다면 되받아 친다(12:24).

부활에 관하여

앞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물음이 정치적 문제와 직결된다면, 막 12:18-27 은 보다 종교적 혹은 유대인 고유의 전통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 문제를 다룬다. 마가복음에서 오직 여기에만 등장하는 사두개인은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이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사두개인들이 재물에만 관심을 두었고, 대중들 사이에 추종자가 없었다고 간략히 표기한다(유대 고대사 13.298). 당시에 큰 부를 축적하려면, 농민들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인데, 그들은 로마제국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배체제를 가장 옹호하는 자들로 분류된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언급하기 보다는, 부정적인 면—곧 그들이 추구하지 않는 것—을 통해 사두개인을 소개한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부활을 믿는 예수에게 묻는 장면이다. 겉으로는 성서해석과 관련된 논쟁으로 보이나, 결국은 예수를 책잡아 그를 따르는 군중들 앞에서 예수가 답을 못함으로 수치스럽게 하려는 것이다.

본문에서 생각할 점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부활의 의미고 다른 하나는 ‘산 자의 하느님’에 대한 이해다. 일단 부활(復活)은 문자적으로는 다시 삶이다. 영어로 resurrection 은 라틴어 resurgo (re+surgo)에서 온 것으로 다시 일어남(rise again)을 뜻한다. 또 헬라어 아나스타시스(ἀνάστασις)는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라기 보다 어떤 모양으로든 바로 일어섬(standing up)을 뜻한다. 문제는 ‘부활’을 이야기 할 때, 우리들 대부분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으로 믿는다는 점이다. 부활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부활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죽기 이전의 삶으로의 회귀, 곧 현상유지(status quo)를 인정하는 격이고, 이것이 사두개파의 지론이다. 보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예수는 이것을 전적으로 부정한다.

신명기 25:5-10 에 있는 계대결혼(繼代, levirate marriage)은 말 그대로 연이어 남편을 대신하는 의무를 말한다. 어떤 특정한 율법을 논하기 보다는 부활을 비꼬기 위해 사두개인이 만든 이야기다. 일곱 형제가 모두 여인을 취했다. 이럴 경우 누구의 아내,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이 질문이 성립하려면, 저 세상, 부활에서의 삶이 현 삶의 연장임을 전제해야 한다. 물론 결혼제도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는 말한다.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삶은 그런 제도 속에서의 삶이 아니다. 그런 제도가 필요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질문에 도입된 모세의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두개인은 부활, 저 세상에서의 삶이 현재의 삶의 연속으로 보았다. 많은 신자들이 부활을 이렇게 이해하는 듯하다. 현 체제는 유지하되, 그 안에서 보다 풍족한 혜택을 꿈꾸며 대형 스마트 텔레비전, 고급 자동차, 큰 집, 금으로 치장한 도로 그리고 그 옆에는 달러(dollars)가 주렁주렁 달린 돈 나무를 연상한다. 한 마디로 부활과 천국이 이 세상 경쟁사회의 복사판이고 지배체제의 연장선 속에 재연된다. 물론 내게 좋은 쪽으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자면 남들과 차이가 없고 거기서 오는 성취감 또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아래는 지옥도 만들어 놓고, 속으로 흐뭇해 한다.

모세의 결혼제도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위한 법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당시 가부장적인 종족보존 사회에서 죽은 사람의 이름과 유산을 남기기 위해 계대결혼 제도가 도입되었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미망인의 삶을 위해서다. 남편이 없는 여인은 당시 사회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존재인데, 과부와 고아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가 마련되었다면, 굳이 모세의 법을 들먹여 여인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 예수는 말한다. 다가 오는 세상에서는 결혼을 통해 연명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 지배체제와 남존여비 사상에 억매인 삶이 아니다.

산 자의 하느님

하느님은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느님이다(막 12:27 // 출 3:6). 여기서 산 자를 현재 살아 숨쉬는 자로 볼 수 있지만, 본문에서 아브라함, 이삭, 요셉의 하느님을 말할 때, 그들 모두는 이미 죽은 자들이다(출 1:5).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시에 신들의 담당 구역이 다른 만큼, 죽은 자들을 관장하는 신은 모트(mot)고 야훼 하느님은 산 자들이 있는 구역을 담당한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하느님의 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두면, 지역구 하느님이 된다.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의 하느님이 되어야 비로소 전국구 하느님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인지 평행본문인 눅 20:38은 연이어서 산 자의 하느님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모두가 하느님께 대하여 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 자의 하느님’이란 표현에서 산 자란, 그저 숨쉬는 자가 아니라 “하느님께 대하여 산 자”(the living in reference to/with respect to God)로 다시 이해된다. 결국 하느님 이야기에서 우리들 이야기로 초점이 바뀐다.

모두가 하느님께 살아 있다(πάντες γὰρ αὐτῷ ζῶσιν, for all live to him). 헬라어 여격(Dative)은 단순히 “...에게”라는 일반적 해석보다 더욱 세밀한 의미를 함축한다. 둘 사이의 우호적이거나 적대적 관계를 설정한다. 마가복음 1장 끝부분에서 예수가 문둥병자에게 한 말, ‘저희에게 증거하라’는 말은 저희에 반하여 증언하라는 뜻으로 적대감을 함축한다.

다시 돌아와 모두 하느님께 대하여 산다 함은 제멋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다. 바울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느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롬 6:11)고 말한 바 있다. 그럼, ‘죽은 자’란?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가 죽은 후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했다고 기록하는데, 문자적으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그 속 뜻은 문을 푹푹 걸어 잠그고 방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그 ‘무덤’과 같은 어둠의 상황을 열고 뛰쳐나와 예수를 증언한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죽은 자’란 인간의 능력,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웅크린 상태를 지적한다. 자의든 타의든 하느님의 창조 본연의 모습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인데, 이로부터 회복함이 부활이고 다시 일어섬(rise again)이다.

우리들의 삶도 영적으로 깨어 늘 하느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있는가 하면, 제멋대로 에고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도 있다. 이것이 성서의 용어로 죽은 자의 모습이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산 자의 하느님이라고 말한다. 죽은 자—참 인간 본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는 하느님이 아니라는 말이다. 당시 부활 개념이 있고, 성서가 내세를 말하고 있다면, 그런 세상은 현 지배체제의 욕심이 손 닿지 않는 거리에 있다.

경천애인

바리새파의 쌍벽을 이루는 힐렐(Hillel)과 샴마이(Shammai)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어느 이방인이 샴마이에게 와 자신이 한 발로서 있는 동안 자신에게 모든 율법(토라)을 가르치면,

유대인으로 개종하겠다고 말하자, 삼마이는 가지고 있던 연장으로 그를 내쫓는다. 그 이방인이 다시 힐렐을 찾아가 같은 질문을 하자 힐렐이 답한다. 네가 싫어하는 일을 네 이웃에게 하지 말라. 나머지 모든 율법은 이 한 가지 계명에 대한 주석일 뿐이니, 이제 가서 공부하라(Shabbath 31a).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인가 서기관이 와서 묻는다. 율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말할 수 있을까? 유대인이면 누구나 답할 수 있고, 또 답해야 하는 질문이다.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니, 하느님만 섬기라(신 6:4). 정체성 선언이다. 그러나 예수는 이것을 현실에 맞게 다시 말한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여기라.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국 같은 말이다.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정체성)를 말한다면, 다른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행동 윤리)를 말하고 있다. 한 마디로, 경천애인(敬天愛人)이다.

서기관은 이것을 제의적 정결법과 비교해 나름대로 의견을 내놓는다. 온전한 제물(레 1:3, 10; 9:2-3; 23:12, 18; 민수기 28-29 장) 보다는 온전한 마음, 온전한 지혜, 온전한 힘이 우선이다. 정결법 상의 외형적 온전함이 아닌, 몸과 마음이 갈리지 않은 일관된 삶을 말하고 있다. 온전한 마음이 온전한 삶을 가져온다.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일관된 가치관으로 생활하는 그런 온전함이다. 지혜로운 대답이다.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러나 아직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은 아니다. 말과 생각 뿐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다.

신학 다시 하기

앞의 이야기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먼저 예수에게 와서 질문한다(12:14, 28, 28). 더 이상 질문이 없자(12:34), 이제는 예수가 응대하여 말한다(12:35). 성전에서 가르침은 갈릴리 회당에서 예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지배신학에 대한 도전이고 재해석이다.

어째서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전통적 예루살렘(시온) 신학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시 2:2 에서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을 지칭한다. 제왕시(royal Psalm)로 알려진 시편 110(LXX 109 편) 역시 그리스도로서의 다윗을 염두에 둔 작품이다.

주(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막 12:30 // 시 110:1).

히브리 성서—그리고 구약성서—에서 첫 번째 주(κύριος)는 야훼(יהוה, YHWH)를 말하고, 두 번째 주(κύριος)는 다윗을 지칭한다. 누군가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가복음 저자를 통해 말하는 예수는 이 시를 다윗이 작성했다고 본다. 그렇기에 처음 주(κύριος)는 야훼(יהוה, YHWH)를 말하고, 두 번째 내 주(κύριος) 역시 다윗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그리스도)을 가리킨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말했으니,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는 논리다.

예수의 이런 그리스도 이해는 다윗 신학과 함께 당시 지배 신학(가치관)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렇다고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 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이는 똑같은 체제 하에서 사람만 바뀌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신학, 다른 이해가 전제된다. 베드로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가 꾸짖은 이유는 베드로가 현 지배체제와 가치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말했기 때문이다. 당시 예루살렘 지배체제 속에서 예수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을 기대했던 제자들과 다르지 않다. 후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가 물었을 때, 예수가 그렇다고 답한다. 동문서답이고 우문현답이다. 대제사장은 서기관들처럼 다윗의 후손, 곧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했지만, 예수는 하느님의 기름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말했다. 스스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의 발로다.

어떤 그리스도인가? 이 물음은 우리들 지도자 상과 무관하지 않다. 혈연, 지연, 학연에 얽힌 통치 체제가 과연 얼마나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까? 본문에서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12:37)는 표현에서 우리는 당시 사람들의 지배체제에 대한 불신과 함께 예수를 향한 희망을 엿본다.

헌금과 종교생활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는 문학적 설정에서 이어지는 두 이야기 역시 서기관들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그들의 종교생활 역시 현 지배체제와 제도권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상석을 원하고 풍족한 가운데 헌금한다. 종교생활이 일종의 취미생활이다.

예수는 헌금함 맞은 편에 서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것을 지켜본다. 결코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성전봉괴를 선언하듯(13:3) 예수의 태도에서 못마땅한 표정을 읽을 수 있다. 여기서 부자는 문맥상 바로 앞 절에서 말한 ‘과부의 가산을 삼킨’ 그 서기관으로 볼 수 있다(12:40-41). 이렇게 넉넉한 가운데 부자는 많이 넣는데, 과부에게는 두 렵돈 외에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 렵돈이 당시 가장 적은 화폐 단위로 1/128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졌다면, 두 렵돈은 겨우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예수는 말한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다. 물론 비율로만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과부는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바치고 부자는 여유 돈을 넣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이 과연 마지막 남은 동전 몇 푼까지 헌금함에 넣는 과부의 신앙을 칭찬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 아니다. 오히려 과부의 모든 가산을 빼앗고도 나머지 한 푼까지 바쳐야 하는 살인적인 성전체제를 비아냥거린 것이다. 그 후 성전봉괴 선언이 나온다(13:2).

신앙생활이란 취미 활동이 아니다. 남아도는 한가한 시간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험을 드는 행위도 아니다.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치열한 현실 속에서 어떤 가치관(믿음)을 가지고 살아 가는가의 문제다. 신앙생활과 부활은 늘 같이 간다. 부활신앙은 인생이 끝난 후 이야기가 아니다. 현생, 지금 여기서의 삶의 변화를 말한다.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다. 부활도 다시 삶이요, 중생도 다시 삶이기 때문이다. 근본적 변화가 있는 새로운 삶이기에 부활이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한 삶이고 누구에게나 열린 삶이다. 부활은 하느님께 대해서 사는 삶이다. 내 욕심을 종교적 힘을 빌어 초자연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욕심이 아닌 하느님 뜻대로 사는 삶이 부활신앙의 시작이자 끝이다.

생각해 보기

1. 기존의 신학 혹은 교회의 가르침 중에서 내 실존과 상충되는 것은? 구체적인 예를 들라. 나는 이것을 어떻게 (재)해석하는가?
2. 교회의 헌금이 어떻게 쓰여야 할까?